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액보험 투자 정보 가이드

변액보험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펀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됩니다. 카디프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금융시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변액보험을 관리해보세요!

CARDIF GUIDE <2017.10>



BNP PARIBAS CARDIF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보험사

■ 본 자료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제공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및 투자결과에 대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4632호(2017. 9. 29)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

- 글로벌 위험자산의 상대적 선호 가운데 통화 정책 정상화 움직임 주목

글로벌 자산군 선호도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01

국내 주식

IT 업종 중심의 실적 개선은 긍정적이나 수급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

- 단기: 이머징에 대한 투자심리 건조한 가운데 IT 중심의 실적 호조 지속은 긍정적.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와 차익 실현 욕구 등이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출이 나타나는 점이 부담
- 중기: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IT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여부에 주목.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02

국내 채권

기준금리 인상 지연과 원활한 수급 여건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 예상

- 단기: 연말까지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채권수익률의 하단을 제한할 수 있음. 하지만 완만한 물가상승률과 부채한도 재협상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계획이 실효력을 얻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또한 국내 수급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어서 채권수익률의 상단 역시 크게 높아지기 힘들 것이며, 10월 채권시장은 박스권 흐름 예상
- 중기: 물가상승률이 반등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12월 예상). ECB 역시 Tapering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 매파적 색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채권수익률은 상승 압력이 좀 더 우세할 전망. 다만 수급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어서 금리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내년 초까지 채권시장은 소폭의 금리상승 흐름 예상

03

선진국 주식

미국은 상승 모멘텀 둔화, 유럽은 건조한 경기 흐름에 상대적 강세 전망

- 미국: 실물지표 반등과 함께 Economic Surprise Index가 바닥 확인 후 반등한 점은 긍정적.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과 함께 기존 스키줄대로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되며 할인을 상승 우려
- 유럽: 정치적 안정 및 유로화 강세 압력 완화에 따른 유럽증시 반등 긍정적. 다만 최근 기업 이익 전망이 다소 꺾인 점은 추가 상승폭 일부 제한 가능

04

신흥국 주식

이머징 위험 자산의 완만한 상승 전망

- 인도: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건조한 경제 펀더멘털, Modi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다만, 작년 말 이후 주식시장 랠리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높아짐
- 중국: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중국 경기도 우호적인 흐름. 이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황 조정되며 주가지수 완만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판단.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경제/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긍정적

05

해외 채권

통화정책 움직임과 허리케인 등에 따른 단기 경제지표 변동성 확대 가능성

- 단기: 10월부터 연준의 자산 재투자 종료 시작되는 가운데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고려 시 시장 금리 오름세 예상.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단기 경제지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
- 중기: 연준의 자산재투자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력. 다만 경기 및 물가 둔화 나타날 경우 정상화 속도 늦어질 수 있어 약세폭은 가파르지 않을 전망

06

원자재

원유는 초과 공급 우려 완화, 금은 통화 정책 움직임에 따른 박스권 흐름 속 지정학적 리스크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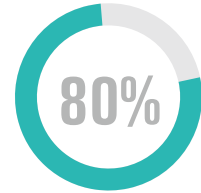
- 유가: 미국 원유 시추공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생산 감소 나타난 점은 초과 공급 우려 완화 요인. 허리케인에 따른 미찰적 재고 변동은 단기적으로 유의
- 금: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금 가격에 부정적 영향 미치며 상단 제한 예상.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안정추구형 투자자

투자손실에 대해 매우 민감하여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고객입니다. 그래도 자산 중 일부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마음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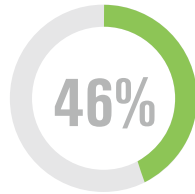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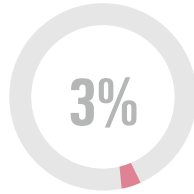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위험중립형 투자자

기대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 그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객입니다. 고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적절한 분산 투자가 기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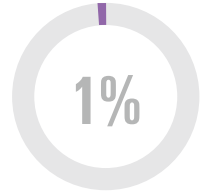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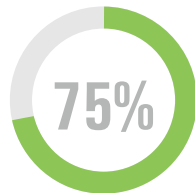
국내채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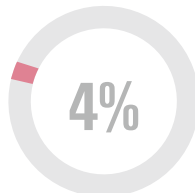
유동성자산

성장추구형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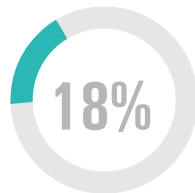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객입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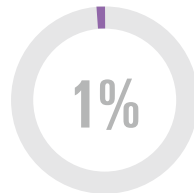
국내주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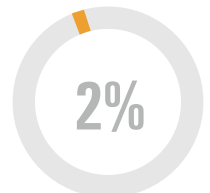
해외주식형



국내채권형



유동성자산



대체투자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국내	주식	+	이머징에 대한 투자심리 견조한 가운데 IT 중심의 실적 호조 지속은 긍정적.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차익 실현 욕구 등 맞물리며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출이 나타나는 점이 부담	증시 상승세를 주도해 왔던 IT 업종의 실적 개선 흐름 지속 여부 주목.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필요
	채권	=	연말까지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채권수익률의 하단을 제한할 수 있음. 하지만 완만한 물가상승률과 부채한도 재협상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연준의 연내 추가 금리인상 계획이 설득력을 얻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짐. 또한 국내 수급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어서 채권수익률의 상단 역시 크게 높아지기 힘들 것. 10월 채권시장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됨	물가상승률이 반등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12월 예상)이 가능할 전망. ECB 역시 Tapering 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지만, 매파적 색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내년 1분기까지 채권수익률은 상승 압력이 좀 더 우세할 전망. 다만 수급 여건은 여전히 우호적이어서 금리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음. 내년 초까지 채권시장은 소폭의 금리상승 흐름 예상
해외선진	미국	=	실물지표 반등과 함께 Economic Surprise Index가 바닥 확인 후 반등한 점은 긍정적. 다만 인플레이션 기대 회복과 함께 기존 스케줄대로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되며 할인을 상승 우려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 옹호 등으로 경제자문단이 해체되며 재정정책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점은 부담 요인. 다른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 예상
	유럽	+	정치적 안정 및 유로화 강제 압력 완화에 따른 유럽증시 반등 긍정적. 다만 최근 기업 이익 전망이 다소 꺾인 점은 추가 상승폭 일부 제한 가능	금융주 비중 높은 유럽증시에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호적으로 작용 가능. 시장금리 반등 환경에서 선진국 내 상대 성과 양호할 전망
	일본	=	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일본은행의 완화적 정책 기조 유지되며 엔화 약세 보이는 점은 긍정적. 다만 단기 오름세 기팔랐던 만큼 속도 조절 가능성 상존	선진국 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 이익 전망과 밸류에이션 매력에 증시 하단 지지하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 따른 엔화 강세 및 일본 증시 약세 부담 존재해 중립 추천

섹터	투자매력도		1개월 코멘트	6개월 코멘트
		6개월		
해외이머징	브라질	=	경기 회복과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정부의 기업 우호적 정책은 긍정적이나, 철광석 가격 상승 둔화는 주가 지수 상승세를 약화시킬 전망	브라질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브라질 증시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 보일 전망.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남아있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 밸류에이션 부담은 부정적인 요인
	러시아	=	글로벌 유가가 완만한 상승세 보임에 따라 러시아 RTS 지수도 제한적인 상승 보일 전망.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는 긍정적으로 작용	글로벌 유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기업 이익 회복세도 둔화되며 주가 지수 큰 폭의 상승은 쉽지 않을 전망. 다만 신흥국 밸리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하단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
	인도	+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 Modi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 다만, 작년 말 이후 주식 시장 랠리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다소 높아짐	경제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완화적 통화정책과 구조 개혁 노력이 구체화되는 점 긍정적.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과 함께 중기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아세안	=	글로벌 주요국 경기 개선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지며 아세안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는 우호적일 전망. 다만 주가 지수가 달러화에 민감한 가운데, 연준의 자산 축소는 부담 요인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세,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호조 전망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 다만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따른 대외 리스크는 부정적
해외이머징	중국	+	글로벌 경기 개선과 함께 중국 경기도 우호적인 흐름. 이에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며 주가지수 완만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판단.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경제/금융시장 안정화 노력도 긍정적	중국 경기 개선과 이에 따른 중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우호적. 수급적으로도 중국 본토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지속될 전망. 다만,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규제 발표에 우려는 지수 상단을 제한할 전망
	홍콩	=	중국 주식시장 호조에 홍콩 주식시장도 완만한 상승 전망. 다만 높은 은행업종 비중 영향으로 상승세 다소 제한적일 전망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우호적 환경에 동반 오름세 기대하나 본토에 비해서 상승폭 크지 않을 전망. 중국 A주의 MSC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도 부담
해외채권	채권	-	10월부터 연준의 자산 채투자 종료 시작되는 가운데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고려 시 시장 금리 오름세 예상. 허리케인 영향에 따른 단기 경제지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	연준의 자산채투자 종료 및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채권시장 약세 압력. 다만 경기 및 물가 둔화 나타날 경우 정상화 속도 늦어질 수 있어 약세폭은 가파르지 않을 전망
대체투자	유가	=	미국 원유 시추공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생산 감소 나타난 점은 초과 공급 우려 완화 요인. 허리케인에 따른 마찰적 재고 변동은 단기적으로 유의 필요	OPEC의 생산 조절 노력과 수요 증가 전망은 긍정적이나 미국 생산 확대 부담이 유가 상단을 제한하는 흐름 연장 가능. 기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금	=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은 금 가격에 부정적 영향 미치며 상단 제한 예상.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반등 과정에서 헤지수요 유입 가능. 금 가격 제한적 등락 흐름 예상

EUROSTOXX50 지수

미 연준은 9월 FOMC를 통하여 10월부터 자산긴축 시작을 선언하였으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선진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은 차츰 약화되는 중으로, 미국 경기는 고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존 역시 내수지표 회복과 수출 및 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상충되며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모멘텀은 상반기보다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과 글로벌 교역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신흥국 경기가 비교적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HSI 지수

1월~9월 고정자산 투자는 7.8%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이는 최근 지방정부 신용관리에 집중함에 따라 인프라 투자가 둔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편 9월 21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는 중국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단계 강등하였으며, S&P는 과도한 부채증가가 중국 경제와 금융 분야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Moody's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위안화 환율 및 역외 위안화 시장에 적극 개입한 바 있으므로 단기간 내 중국 내 환율 및 주요 금리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OSPI200 지수

교역물량 증가와 추석 연휴를 앞둔 밀어내기 효과 등으로 국내는 9월까지도 높은 수출 증가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경기 회복세의 수출과 투자 쏠림 현상이 심한 가운데, 4분기부터는 가격효과 약화로 수출 증가율이 차츰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은 경기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과 북한 Risk 등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내수의 가파른 회복을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공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어려운 용어... 한숨 쉬지 말고, 쉽게 알아보아요!

테이퍼링(tapering)?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으로, 출구전략의 일종입니다.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최초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Economic Surprise Index)? 시티그룹이 만든 지표로, 실제 발표된 경제지표가 시장 전망치와 얼마나 부합했는지 정도를 지수로 나타냅니다. 지역별·국가별 경기 모멘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0(중립)'보다 높으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많았다는 뜻이며, 반대로 '0'보다 낮으면 전망치를 하회한다는 뜻입니다. 지표의 방향성이 경기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하면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BNP파리바 카드프생명의 ELS 변액보험 상품 및 ELS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주식회사 두물머리에서 운영하는 ELS리서치 (<http://elsresearch.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기투자의 룰] 묻어두고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투자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투자 결정의 반복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익률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과정에 결정의 횟수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택지가 많다면 신경이 쓰이고, 정신이 피폐해질 뿐 아니라, 선택의 질이 중요한 일이라면 결과는 반드시 더 안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의 여지가 많아지면 아마추어에게 불리합니다. 실수의 횟수가 적다는 것 자체가 프로라는 의미이므로, 프로가 아닌 이상 장기전을 하고 섯불리 건드리지 않는게 상수입니다. 사소한 정보에 전체적 결정을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크고, 최초의 결정 근거들이 외면될 리스크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잘 모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초기에 반드시 반복이 쉽지 않은 상품들을 활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이 가능한 것이 어떤 계약이던 더 좋은 계약이라는 통념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 하지만, 사실입니다. 예적금과 부동산이 좋은 예입니다. 어른들이 적금을 권하던 이유는 단지 당시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에 걸쳐 꾸준히 모으고 만기를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투자의 관념을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하기에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쓸데 없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만기를 기다리다 보면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신감이 천천히 몸에 베어 들게 됩니다. 또한 만기가 되면 여유있게 재투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으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투자의 핵심들을 몸으로 체화하게 됩니다. 주식 단타투자는 반면에 일희일비와 일확천금의 가능성을 아주 편파적으로 체화하게 되어 평생을 일확천금 정신으로 불리한 도박판에 홀린 듯 끌려들어 가는 정신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되파는 비용이 매우 커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던 말던 기다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치 상승이 가장 컸던 주식이야 말로 십년 이상 묻어둔 사람들은 대다수가 큰 자산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만기'의 개념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군대 2년이 의무가 아니라, 중도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더 행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만둘 수 있는 직장도 마치 사정상 그만둘 수 없다고 자기세뇌를 시킵니다. 선택지가 없어야 마음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육아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손절이 가능하면 고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손절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10년을 보고 한 투자가 1분 1초 손절에 대한 고민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언제든지 손절이 가능할 것만 같고,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10년을 보지 않은 것이 더 큰 잘못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중도에 상당한 폭의 손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되, 결과는 만기가 되어야 정확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부자들은 반드시 이런 상품들을 활용합니다. 손절을 잘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손절을 잘하는 것은 거지가 안되는 방법입니다. 부자는 인내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투자를 구성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ELS 리서치 (<http://elsresearch.com>)



어디서든 모바일 기기 하나로
편리하게 계약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구매 없이
MY카드프 APP에 접속!



MY카드프 APP
다운 받으세요!



▶ 검색창에 카드프생명 또는 마이카드프 입력 후 검색
▶ 설치버튼을 눌러 설치 실행

글로벌 시장 상황 파악

이번 달 핫이슈 및 자산시장별 투자 전략 참고

STEP 01

나에게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성향별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STEP 02

펀드 관리

수익률 관리,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 기능 활용

STEP 03

🔄 펀드 변경 안내

변경 유형



적립비율 변경

현재까지 누적되어 있는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적립비율을 변경



투입비율 변경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적립비율+투입비율 변경

계약자적립금의 적립비율과 특별계정 투입금액의 펀드별 투입비율 변경

변경 방법



My Cardif

홈페이지 방문 : www.cardif.co.kr
APP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카디프 생명' 또는 '마이카디프' 검색



은행/보험사 방문

보험을 가입하신 은행 또는
보험사에 직접 방문 후
펀드 변경 신청

기준일 「펀드 변경 요구일 +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 적용
*영업일 기준은 개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 횟수 연 12회 이내 가능

수수료 없음(다만, 차후 약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 가능)



📌 변액보험 계약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 계약은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보험금 및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